

이 없다.

〔註〕伊藤庄兵衛氏藏「新羅古瓦の研究」圖版第六四

安宗茂의 白磁墓誌

鄭 良 謨

昨年末 仁川博物館에 갔다가 우연히 在銘筒形白磁墓誌 하나를 調査한 바 있어 여기에 紹介하고자 한다.

이 墓誌銘은 縱書로 一行約二十四字 總二十八行이 釉裏에 石間硃로 記錄되어 있으며 銘文 自體가 彩料의 溶解때문에 흐리어진 곳이 많고 釉藥이 고르게 썩어지지 아니해서 部分的으로 銘文의 判讀이 困難한 部分이 많다. 더욱이 銘文 後半部는 그것이 더욱 甚하여 몇字를 除外하고는 거의 判讀이 不可能하였다. 이제 判讀할 수 있는 限 그 銘文을 적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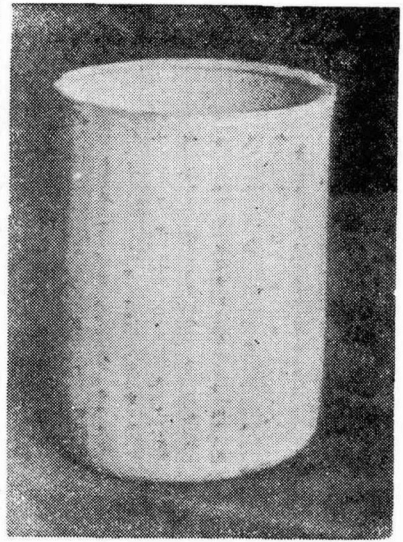
〔註〕 보이지 아니하는 銘文이 있어 上下의 文脈 又是 몇가지 參考文獻을 보아 그것을 메꾸어 보았다. 誤補의 比正을 바란다(△標는 희미하나 대개 判讀 가능한 것이요. □는 아니 보이는 文字이니 □內의 補入은 筆者가 넣은 것이다)

- 1 有明朝鮮國朝散大夫行刑曹正郎安公墓誌
- 2 公諱宗茂字如松竹山人延昌尉良孝公諱孟暉十一世孫
- 3 也高祖諱因變司僕寺僉正贈□□宗贊曾祖諱絢通德
- 4 郎祖諱相輿進士早卒考諱允成通德郎妣全州李氏通
- 5 德郎諱廷高之女密國君章瓘公諱瓘之後公以肅宗癸未
- 6 十月初五日巳時生庚子丁母夫人憂過國嬰奇疾乙卯丁通德
- 7 公憂已未瓘瓘李先先生學每許以篤信庚申成進士
- 8 仍廢學業癸酉十二月除光陵參奉甲戌八月移童蒙教官
- 9 十二月承命入侍蒙慶諭乙亥二月瓘義禁府都事以曹

第四卷 第二號 通卷三十一號

- 10 司參□□鞫獄承命再擢逆囚柱天家文書有成歡驛之配
- 11 之嚴旨才出都門旋下功過相准勿配調用之教五月復拜
- 12 義禁府都事旋擢童蒙教官戊寅二月率訓下入侍特蒙
- 13 獎諭仍三曹郎調用之命、四月拜水庫別提即移刑曹
- 14 佐郎十月陞正郎己卯七月以砥平縣副擬受點蓋上連飾
- 15 訓□於禮官瓘瓘每有安某善教小學之教除命之前復
- 16 諭□□其□□幸特□記有之恩故也位任三年連
- 17 受誥考辛己十月二十八日以宿患舉覆於官次享年五十九
- 18 瓘□□五陵後新□丑坐之原公自號尋樂窩略□
- 19 文□□李氏通德郎□之女同知中樞松溪麟部
- 20 之□□□慶州李□宗女生男幼二
- 21 □□進士杞溪俞彥女女長女天適尹□
- 22 東生男□□朴宗□□女幼公之志行
- 23 陶庵先生□許□□以不□□關□亦
- 24 □立□子叙□生卒以納□至於平日教
- 25 □□墓境割半之悲□備述云□年□至舍
- 26 弟□宗□謹述
- 27 歲在崇禎後三辛巳十一月 日在砥平瓘
- 28 燻瓘

以上 銘文에서 보면 主人公 安宗茂는 李朝肅宗 二十九年 癸未(一七〇三)에 나서 英祖 三十七年 辛巳(一七六一)에 五十九歲로 下世한 사람이었다. 竹山安氏로서 世宗의 駙馬인 延昌尉 良孝公의 十一世孫으로 陶菴 李絳의 門人이며, 그의 나이 三十八歲時인 英祖十六年 庚申에 進士가 되고 그後에 學業은 廢하였으나 五十一歲인 癸酉에 光陵參奉을 除授함에 비롯하여 童蒙教官으로 義禁府都事로 水庫別提로 刑曹佐郎으로 英祖 二十五年 己卯에는 五十七歲로서 砥平縣監이 되었으며 砥平에서 世上을 떠났다. 그의 官歷은 大端한 것이 아니지만은 墓誌銘 第七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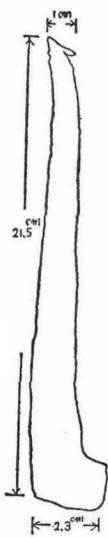


「從陶菴李先生學 每許以篤信」이라든가 또한 同十二行에 「率訓下入侍 特蒙 獎諭」했다던가 다시 同十四行에 「己卯七月 以砥平 縣副擬 受點(中略) 禮官

敦小學之教」라 한 것 등을 보면 陶菴의 門人으로서 자못 學行에 장함이 있었고 그것으로 英祖의 特恩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此銘文外에도 典故大方 陶菴門人條에서 安宗茂의 名字를 볼 수 있음을 始하여 朝鮮名臣錄 竹山安氏條에

「安宗茂(中略)從陶菴學 甚重之 好誘掖後進」이라 하고 號譜 ④ 에도 同 意의 文이 실려 있음을 보아 그의 學行을 엿볼 수 있겠다.

이 墓誌는 高二·五 櫃 直徑(外徑) 十七 櫃의 內孔의 筒形白磁器이며 上緣은 그 두께가 一 櫃 下緣은 二·三 櫃로서 外徑은 같으나 內徑은 上·下가 다른 卽 그릇의 두께가 위는 얇다가 차차 두꺼워지면서 低部에서 約三 櫃에 이르러 훨씬 두꺼워지고 있어 그 斷面을 表示하면 如左하다.



別한 彫飾은 없으나 上部의 形의 凸凹을 넣어 一條의 線을 나타냈으며 內 部로도 上部엔 凹面을 넣어 인듯 보기에 筒形의 그릇 같은 印象을 주고 있다.

白磁系統의 此墓誌는 高臺에 모래를 놓아서 구은 모래굽으로 下底部의 內緣部가 外緣部보다 낮은 까닭에 內緣部에는 比較的 整頓이 잘 되

었으나 砂粒이 若干씩 백여 있다. 釉調를 살펴 보면 태토自體에 鐵分의 含有가 좀 많은 듯 內部의 三分之一가량은 施釉가 없이 黃褐色의 堅緻한 素地를 들어 내고 있으며 其外는 帶灰色 乃至는 灰色의 釉調를 나타내고 있다. 外釉는 帶灰紅色, 灰色, 灰黑色帶로 나눌 수 있으며 帶灰紅色의 部分은 가장 光澤이 있고 微細한 水裂이 있으니 가장 釉藥이 잘 融附着된 곳이라 하겠다. 部分的으로 灰黑色을 이룬 곳은 釉藥이 거의 녹지 아니하여 光澤이 없고 거칠며 小圓孔이 無數히 생겨 釉藥이 脫落되어 나가고 있다.

이 墓誌의 燔造年代와 窯址는 銘文第二十七, 二十八行에

「歲在崇禎後三辛己十一月 日在砥平縣燔造」이라 하였으니 辛己는 英祖三十七年 卽 西紀一七六一年이니 去今 二百三年前이요, 主人公이 下世한 해가 同年 十月이니 바로 그 다음 달인 十一月에 造成되었음을 알겠다. 窯所는 前引同行에 「在砥平縣燔造」라 하였으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八 砥平縣 土產條에도 「磁器, 陶器」가 그 產物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中宗以前부터 窯所가 있었고 적어도 英祖代까지는 窯所가 있었음이니 以上에서 그年代와 窯所를 짐작할 수 있겠다.

以上 두서없이 安公墓誌에 對한 것을 略述하였거니와 主人公과 年代와 그리고 窯所가 確實한 것으로서 또한 그 形態로 보아 石製의 墓誌나 陶製이면서도 이와 다른 모양 卽 어면 그릇을 만들고 又是 陶板에 銘文을 쓰는 境遇는 많으나 이와 같이 圓筒形에 內孔이고 上下가 다터어 있는 境遇는 大端히 稀貴하다는 點에 留意된다고 하겠다.

註

- ① 朝鮮名臣錄 竹山安氏條 「安宗茂 安如松(下略)」
- ② 萬姓大同譜 竹山安氏系譜 「孟聘 延昌尉良孝公世宗駙馬」
- ③ 同譜 「廷燮, 僕食晚悟軒 柳潤女」

④ 綯. 當銘文에는 綯으로 되어 있으나 萬姓譜에는 曾祖의 諱가 綯으로

로 되어 있으며 安公의 九代祖가 兄弟로서 安公은 兄弟中 弟邦炯의 後孫. 兄 邦烈의 後孫(十世孫)으로 絢이 있으며 이 사람은 安公의 조카딸이 되는 사람이니 後考에 미룬다.

⑤ 同譜 安公 祖父列에

「相爽、進士李益輝女」

⑥ 同譜 安公 父列에

「允成、李廷高女」

⑦ 璿源世系 世宗大王後系(十二面)에

「五男密城君琛 慎嬪金氏出」라 있고 成宗實錄 卷一〇〇成宗十年 正月 戊午條에

「密城君琛卒(中略)卒年五十、諡 章孝(下略)」라 있다.

⑧ 文脈上으로 「丁母夫人憂하고 過毀하여 嬰奇疾이라」

⑨ 典故大方 陶菴門人錄에

「安宗茂 如松」라 있고, 朝鮮名臣錄 竹山安氏條에

「安宗茂(中略)從陶菴學 甚重之(下略)」

⑩ 英祖가 安公을 獎諭하고 그를 特遇하였다함이 屢次 보이며 특히 擬로서 受點되었다 함도 드문 일이니 이러한 사정과 文脈으로 「臨講에 每有安某善教」라 남음

⑪ 우리말에 卑復이다. 하면 招魂을 뜻함이니 여기서는 別世하였다는 뜻으로 봄(국어 새사전 六四面 高복조)

⑫ 陶菴二字를 넣음은 墓誌에 菴字는 아니 보이나 陶字中 「阝」此劃은 살릴 수 있음에서 이다.

⑬ 萬姓譜 安公同列에 그 同生이 둘 있으니 宗耆와 宗秀라, 秀는 縣監을 지냈다하고 耆에는 아주 기록이 없으니 宗秀의 所述이 아닌가 한다.

⑭ 陶磁器 굽는 것을 우리는 燔造라 일러 왔고 大典會通工典 雜令條에

「司窰院燔造磁器、一年二次、春秋進上」이라 있음

⑮ 號譜 義卷 齊號條에

「安宗茂(中略)從陶菴學、陶菴重之、好誘掖後進」

金海郡 甘露里的 寺址

鄭 永 鎬

昨年八月에 金海郡上東面甘露里 新谷部落의 廢寺址를 踏查하여 數種의 遺物을 調査한 바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이 一帶를 甘露寺址라 傳稱하는 바 이에 對한 記錄은 東國輿地勝覽①과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② 등에서 볼 수 있는데 「甘露里」라는 地名도 寺名에서 由來된 바 라 한다. (洞民談話)③

이곳은 許氏家門에서 約一〇〇年前에 住居하여 現在 五代에 이르렀다고 하는 바(四一三番地 許宦——當四五歲) 지금은 約三〇戶의 部落이 形成되어 있다. 洞里의 東北方 臥牛山下에는 二段의 石築과 三層石塔이 現存하고 各家戶에는 礎石、蓮花臺石、浮屠破片等 當代遺物이 散在하였는데 그中 花崗石龜趺가 注目되었다.

一、石築과 三層石塔

石築은 大、小、石材로 構築한 通例形成이고 下壇高二·五m 長一六m 上壇高三m 長一〇m로 南向山麓인데 지금은 모두 耕作地가 되고 或 間 瓦片和 礎石이 發見된다. 石塔은 下石築東側에 位置하였는데 下基와 塔身一部가 埋沒되어 現高二·一m로서 一、二層의 屋身을 缺하고 있다. 上基面石은 高六〇cm、幅九四·五cm이며 中央의 撐柱(幅一三·五cm)로 兩區分되고 兩端에는 隅柱(幅二三·五cm)가 刻出되었다. 上甲石에는 浮椽이 있고 上面에는 角形받침 一段과 四分圓의 물받침 그위 角形받침으로 塔身을 받고 있다. 屋蓋받침은 各四段으로 낮은 便이다. 三層屋身은 高一六cm、幅三七·五cm인바 幅七·八cm의 隅柱가 있으며 三層屋蓋石上面에는 徑七·五cm 深一一·五cm의 擦柱孔이 있다. 落水面이 急한 便이며 轉角이 重厚하나 撐柱나 副緣等이 注目되며 麗代의 佳作일 것이다. 앞으로 發掘再調있기를 期待한다.